

고베(神戸)



오사카(大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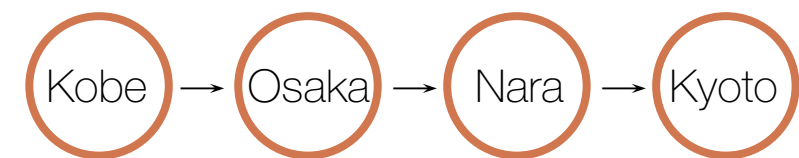
나라(奈良)



교토(京都)

Colorful Cities in West Japan

간사이(關西) 사색(四色) 순례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은 도시마다 다른 색깔을 품고 있다. 휘황한 현대 도시 오사카(大阪), 정갈한 공원 도시 나라(奈良), 유서 깊은 교토(京都), 남만의 항구도시 고베(神戸) 등 서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다른 풍경이 있을까 싶다. 간사이의 주요 도시 4곳의 핵심적인 매력을 소개한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협찬 간사이 광역기구 일본정부관광국(JNTO)



Kobe

효고(兵庫) 현의 고베(神戸)는 이국적인 낭만을 전하는 항구도시이다. 해 질 무렵 고베 앞바다를 유람하는 배에 오르면 항구도시의 낭만과 여유에 마음껏 젖어들 수 있다. 또 산노미야 북쪽의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한 세기 이전에 건축된 서양인 주택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전한다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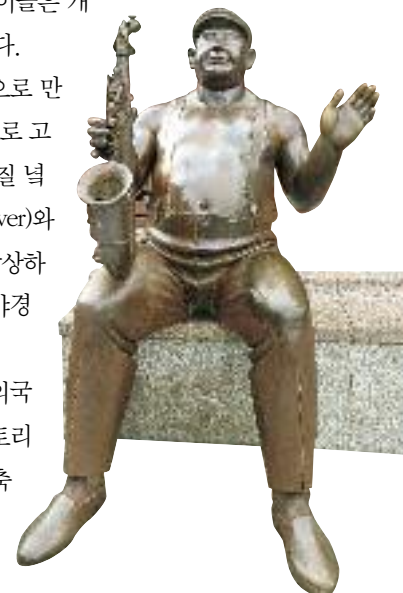
고베

가 한국인에게 유명해진 것은 근래의 특별한 사건 때문이다.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일본의 지진 관측 사상 최대의 파괴력을 지닌 진도 7.2의 강진이 고베를 강타했다. 이 '한신(阪神) 대지진' 으로 인해 도심의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도로는 파괴됐고, 무려 6천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위에 고베를 재건했다. 항구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메리켄파크(メリケンパーク)의 초입에는 당시의 참혹함을 엿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다. 여러 갈래로 조각난 항구의 바닥과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옆에는 기념비를 세웠다.

'고베 항 지진 기념공원' 에서 바닷가 쪽으로 향하면 한적한 공원이 나타난다. 한적한 공원에서는 젊은이들은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어떤 이들은 개를 데리고 나타나 산책을 하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메리켄파크 서쪽의 하버랜드는 항구도시 고베를 가장 낭만적으로 만드는 공간이다. 쇼핑센터와 놀이공원, 음식점 등이 들어선 곳으로 고베 항 인근을 다니는 유람선이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해 질 녘 관광객은 이곳에 찾아와 바다 건너 붉은색 포트 타워(Port Tower)와 하얀색 해양 박물관, 호텔들의 휘황하면서 낭만적인 조명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낸다. 유람선 '콘체르토' 호에 오르면 고베 항의 야경을 바라보며, 맛 좋은 식사도 즐길 수 있다.

하버랜드에서 북동쪽의 기타노이진칸(北野異人館)은 개항 후 외국인이 거주했던 곳이다. 독일인 무역상의 저택이었던 '가자미토리 야카타', 슬레이트가 독특한 '비닐무늬의 집' 등 이국적인 건축물들이 많아 일본 속 유럽 같은 느낌이다.



4

1, 2 일본 개항 후 외국인이 생활했던 고베의 기타노이진칸(北野異人館)에 있는 유럽식 주택 가자미토리 야카타. 3 고베에서 가장 낭만적인 공간인 하버랜드. 4 고베 대지진의 참상을 엿보게 하는 '고베 항 지진 기념공원'.



인구 265만 명의 오사카는 간사이를 대표하는 도시이다. 하루에 모두 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징을 파악한 후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해 여행하는 것이 좋다.

오사카의 주요 관광지는 크게 난바(難波) 역을 중심으로 한 오사카의 최대 번화가인 미나미(南) 지역, 서울 청담동 분위기의 기타(北) 오사카, 오사카의 역사를 대변하는 오사카 성,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으로 나뉜다.

특히 미나미 지역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오사카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이다. 난바 역에서 신사이바시(心齋橋) 역까지 남북으로 뻗은 도로인 미도스지(御堂筋)를 따라 걸으면 오사카의 변화한 상점가를 만나게 된다.

대형 백화점인 '다이마루(大丸)'와 '소고(そごう)'가 위치해 있고, 이태원 같은 분위기의 아메리카 무라(村), 젊은 취향의 브랜드숍이 늘어난 오렌지 스트리트, 명품 거리인 신사이바시 쇼핑 스트리트 등 젊은이라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패셔너블한 장소들이 발달해 있다. 특히 도톤보리 강변에는 커피숍과 현대적인 음식점이 들어서 있어 유럽의 도시를 방문한 듯한 분위기 속에서 강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해가 저물면 도톤보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 쇼핑 스트리트를 연결하는 에비스(戎) 다리에서는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 도톤보리 강과 거리를 감상할 수 있고, 한껏 치장한 특이한 모습의 오사카 젊은이들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옆길에서는 오사카의 다채로운 먹을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Osaka

오사카(大阪)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이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톤보리(道頓堀) 강에서는 유람선 여행을 즐기고, 다코야키, 게 요리, 복 요리, 라면 등 전통의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다.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도 이곳에 있다.



7



5

5, 7 오사카의 도톤보리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해가 지면 도톤보리의 건물들은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6, 8 난바 역에서 신사이바시(心齋橋) 역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이태원 분위기의 아메리카 무라(村), 브랜드숍 지구인 오렌지 스트리트, 명품 거리인 신사이바시 쇼핑 스트리트 등이 자리하고 있다.



6



8

Nara

나라(奈良)는 고대의 수도였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정갈한 공원 같은 작고 조용한 도시지만 일본의 고대문화와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1천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710년부터 784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8개나 있다. 한국인 여행객의 필수 코스인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전을 비롯해 옛날 이곳을 수도로 삼았던 헤이조쿄(平城京)의 궁궐 터, 고색창연한 사찰 고후쿠지(興福寺) 등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도다이지는 신라의 화엄종을 국교로 삼은 당시 일왕이 일본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건립한 곳으로 수많은 사슴들이 노니는 나라 공원과 이어져 있다. 도다이지로 향하는 길에는 사슴이 곳곳에서 평화롭게 노닐고, 강아지처럼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사슴을 쓰다듬거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함빡 짓는다.

탁 트인 진입로를 걸어가면 목조 금강역사입상이 양쪽으로 지키고 선 도다이지의 정문인 난다이문(南大門)을 지난다. 일본식 2층 기와 구조로 문의 높이가 기단에서부터 25.46m에 이르는 거대한 문이다. 규모가 커서 시원스런 느낌을 준다.

난다이문 안쪽에 자리한 대불전은 8세기에 창건된 이후 전란으로 두 차례 소실됐다. 정면 11칸의 건물이었지만 에도시대에 재건되면서 7칸으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건물의 규모는 너비 57m, 높이 49m로 목조건물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내부에 모셔진 높이 15m의 불상은 도다이지의 규모만큼이나 거대하다. 불교로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던 쇼무 일왕이 전국의 동 500여을 모아 26년간 제조했다고 한다.

도다이지에서 남서쪽으로 도보 10분 거리에는 일본의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나라 국립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본관에는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시대의 불상과 조각 등이 전시돼 있고, 신관에는 회화, 서적, 공예, 고고학 유물 등이 소장돼 있다. 불교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들러볼 만하다.



1, 3, 4 도다이지(東大寺)는 신라 화엄종을 국교로 삼은 일왕이 일본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건립한 곳이다. 웅장한 대불전 내부에는 높이 15m의 거대한 불상이 모셔져 있다. 2 나라 공원에서 평화롭게 노니는 사슴의 모습.



Kyoto

교토(京都)는 1868년 수도를 도쿄로 옮기기 전까지 1천 년 이상 일본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다. 번성했던 천년 고도의 이름에 걸맞게 2천 개가 넘는 유서 깊은 사찰과 신사가 옛 영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기후(岐阜) 현의 산악 도시 다카야마(高山), 규슈 오이타(大分) 현의 히타(日田), 이시카와(石川) 현의 가나자와(金澤), 아키타(秋田) 현의 가쿠노다테(角館) 등은 모두 '작은 교토(小京都)'라 불린다. '작은 도쿄'나 '작은 오사카'로 불리는 곳은 없지만 유독 '작은 교토'라는 별칭은 많이 사용된다. 교토는 일본에서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이다.

교토(京都)는 간사이 지방의 필수 여행 코스로 손꼽힌다. 오사카처럼 화려하지도, 고베처럼 낭만적이지도 않지만 이렇듯 일본의 옛 숨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토에는 일왕이 거주했던 교토고쇼(京都御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의례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니조쵸(二條城), 질푸른 녹음과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기요미즈데라(清水寺)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만 17개에 이른다. 그래서 교토는 최대한 느리게 여행해야 한다. 그리고 구석 구석 살피며 다녀야 진정한 멋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교토를 대표하는 변화가이자 환락가인 기온(祇園)도 흥미로운 곳이다. 이곳에는 일본 3대 가부키 극장 중 하나인 미나미자(南座)가 자리하고 있고, 전통 차집과 교토의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요정도 있다. 해 질 녘이면 오래된 2층 목조건물 사이의 거리를 오가는, 곱게 화장한 기모노 차림의 여성과 마주치게 된다.

한편 교토에서는 매년 여름 일본 3대 마쓰리로 유명한 '기온 마쓰리'가 열린다. 7월 한 달간 열리는 축제 '야마보코(山金牟)'라 불리는 등불을 밝힌 거대한 가마가 도로에 전시되고, 축제가 열리는 거리에는 전통 복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닐며, 축제를 즐긴다. 또 골목마다 들머선 포장마차에서는 일본의 갖가지 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5, 6, 7 지난 7월 일본 3대 마쓰리로 유명한 '기온 마쓰리'가 개최됐다. '야마보코(山金牟)'라 불리는 등불을 밝힌 거대한 가마가 도로에 전시됐고, 가마에서는 각종 공연이 마련됐다. 전통 복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며, 축제를 즐겼다.





Spa

고베의 로코산(六甲山) 자락에 위치한 아리마(有馬) 온천은 오이타 현의 벳푸, 홋카이도의 노보리베쓰와 함께 일본의 3대 온천 지역이자 매년 일본 온천 순위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곳이다. 간사이 여행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다면 아리마가 단연 최고이다.



1 나라시대 때 아리마 온천을 발견하고 온천사를 건립한 승려 교키(行基)의 동상. 2 아리마 온천 마을에는 다채로운 온천 여관과 호텔이 들어서 있다. 3, 5 아리마 온천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원천을 직접 볼 수 있다. 4 온천 마을 골목길을 거닐면 탄산수로 만든 전병을 파는 가게와 인형봇(人形筆) 장인의 집 등 흥미로운 상점들을 만나게 된다.

‘사이, 간격’을 뜻하는 한자 ‘간(間)’은 일본어로 ‘아이다(あいだ)’로 발음된다. 간사이 최고의 온천인 ‘아리마(有馬)’는 바로 ‘사이’의 일본어 발음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지명의 유래처럼 아리마 온천 주변으로는 초록빛 신록이 우거진 봉우리들이 삼면을 감싸고 있다.

아리마 온천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나라시대 때 승려인 교키(行基)가 발견한 후 온천사를 건립하면서부터이다. 가마쿠라시대에는 승려 닌사이(仁西)가 숙소 12개를 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곳에 들러 다과회를 갖기도 했다고 한다.

아리마 온천 마을 곳곳에는 지하 300m의 비교적 얇은 곳에서 온천수를 퍼올리는 원천이 자리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가볼 수 있는데 원천 덮개의 굴뚝에서는 연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이곳 온천 중에는 특히 대중탕으로 이용되고 있는 킨노유(金の湯)와 긴노유(銀の湯)가 유명하다. 철분을 함유해 적갈색을 띠는 킨노유는 각종 통증과 관절염, 혈액 순환 장애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무색투명한 온천수가 있는 긴노유에는 고흡압이나 동맥경화 환자에게 좋다는 탄산천과 ‘끓어지는 온천’으로 불리는 라듬천이 있다.

온천을 즐긴 후에는 음식점과 기념품점이 있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산책에 나서서 것이 좋다. 오래된 가옥이 들어선 골목의 비탈길에는 탄산수로 만든 전병을 파는 가게가 있고, 인형봇(人形筆)을 만드는 장인의 집 등 흥미로운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 온천수를 내뿜는 원천과 교키 승려의 동상도 찾아볼 수 있다. R

I N F O R M A T I O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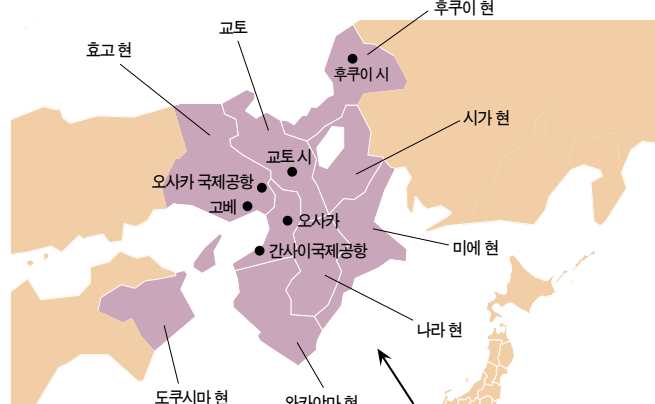
간사이 지방은 오사카, 효고, 교토, 나라, 시가(滋賀), 와카야마(和歌山), 후쿠이(福井), 미에(三重), 도쿠시마(徳島) 등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간사이의 면적은 일본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약 20%가 밀집해 있다. 간사이 지방 여행은 교토, 고베, 나라 등 주요 도시와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간사이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를 베이스캠프로 정하고, 돌아보는 것이 좋다.

가는 법

한국에서는 우선 오사카로 가야 한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페리를 타면 된다. 소요 시간은 인천공항에서 1시간 50분, 김해공항에서 1시간 25분, 제주공항에서 1시간 35분이 걸린다. 페리는 팬스타크루즈에서 드림호와 써니호를 운항한다. 출항 시각은 부산과 오사카에서 모두 매일 오후 4시이며, 소요 시간은 18시간 30분이다.

현지 교통

간사이국제공항과 오사카 국제 페리 터미널은 모두 오사카 시내에서 가깝다. 전철, 지하철을 타고 30분~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전철의 경우 난카이(南海)선과 일본철도(JR)가 운항하며 전철역은 공항 터미널 2층과 연결된다. 난카이 선은 33~42분이 걸리며, JR 간쿠 쾌속은 63분, JR 특급 하루카는 30~48분이 걸린다. 국제선 도착 로비 1층에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는 난바까지 45분 걸린다.



» 교통 패스

간사이 스루 패스(Kansai Thru Pass)

오사카 시내의 지하철, 트램, 버스는 물론 교토, 고베, 나라, 히메지 등 JR을 제외한 간사이 지역의 거의 모든 전철, 지하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이다. 가격은 2일 권이 어른 3천800엔, 어린이 1천900엔이며, 3일 권은 어른 5천 엔, 어린이 2천500엔이다. 구입 고객에게는 간사이 스루 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관광지와 모델 코스 등 여행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국내 여행사나 간사이국제공항 1층 관광안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www.sunutto.com

오사카 주유(周遊) 패스

오사카 시내의 전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오사카 성 등 오사카의 주요 관광지 20곳 이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식당 50곳과 관광 시설 10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일 권은 2천 엔, 2일 권은 2천700엔이며, 시내 관광안내소와 지하철역, 주요 호텔에서 구입할 수 있다. www.pia-kansai.ne.jp/osp

킨테쓰(近畿) 레일 패스

오사카의 난바 역을 기점으로 나고야, 미에, 이세시마까지 운행하는 킨테쓰 노선을 5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패스로 특급 열차 3회 이용권도 포함돼 있다. 교토, 나라, 아스카 등 간사이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거나 나고야까지 여행할 때 이용하면 좋다. 가격은 3천500엔이며, 간사이국제공항까지의 왕복 리무진 버스가 포함된 킨테쓰 레일 패스 와이드는 6천800엔이다. 국내 여행사나 간사이국제공항 1층 관광안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베 항 유람선 관광

고베의 허버랜드 선착장에서는 바다에서 고베 항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콘체르토(Concerto)’ 호가 출항한다. 콘체르토 호는 길이 74m, 폭 13m의 배로 총 604명을 태울 수 있다. 선내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연회실이 마련돼 있고, 맨 위층인 ‘아쿠아 마린’에서는 의자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가면 고베 항은 물론 길이 3천911m의 현수교인 아카시카이교(明石海峡) 대교, 고베 공항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런치 크루즈는 정오~오후 1시 45분, 티(Tea) 크루즈는 오후 3시~4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디너 크루즈는 오후 5시 10분과 오후 7시 20분에 두 차례 운항한다. 운항 시간은 런치 및 디너 크루즈가 1시간 45분, 티 크루즈가 1시간 30분이다. 크루즈 이용료는 성인 2천100엔, 어린이(6~12세) 1천500엔이며, 음식은 별도로 주문한다. 점심과 저녁으로는 중식 뷔페나 코스 요리, 철판구이가 마련되며, 티 크루즈의 경우 딤섬과 철판구이 중에서 선택해 즐길 수 있다.

www.kobeconcerto.com